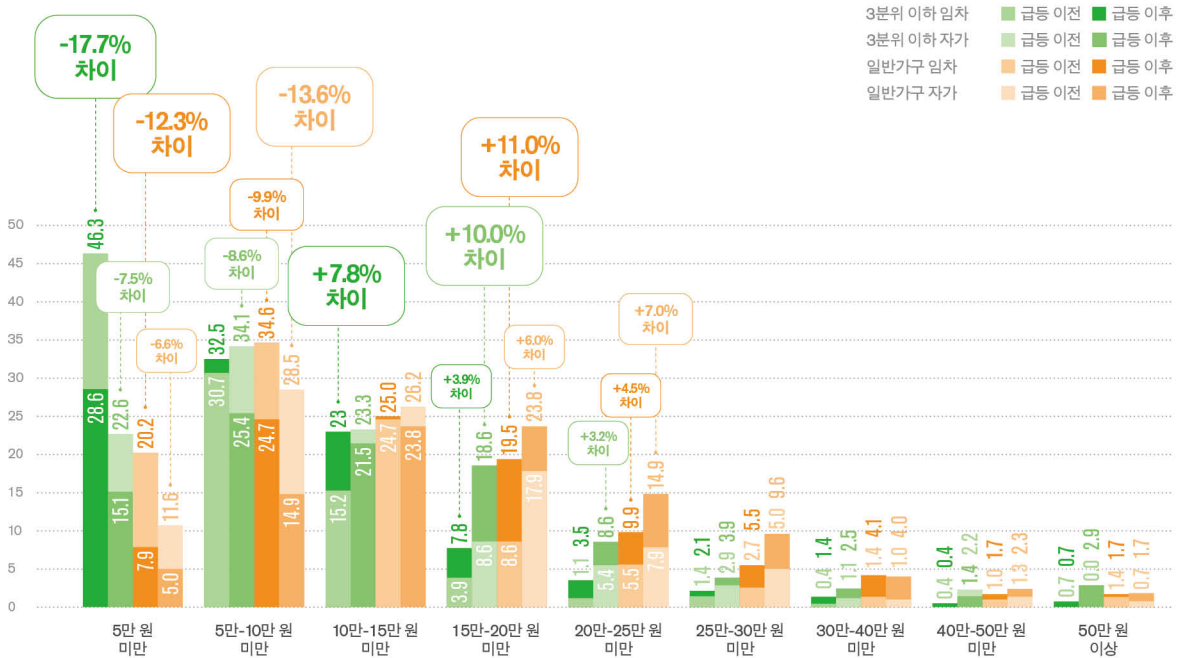


시민들은 따뜻하고 쾌적한 집에 거주하고 있을까?

건축공간연구원은 소득과 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에너지 소비 실태와 집수리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30~70세 가구주와 그 배우자 1,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소득별 구분을 위해 소득 3분위* 이하 가구 562명(자가 가구 279명, 임차 가구 283명)과 일반가구 594명(자가 가구 302명, 임차 가구 292명)으로 표본을 할당하였다.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23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실시하였으며,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.

2023년 1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지출의 변화는?

(단위: %)



모든 가구에서 난방비 지출이 늘어났으나, 3분위 이하 임차가구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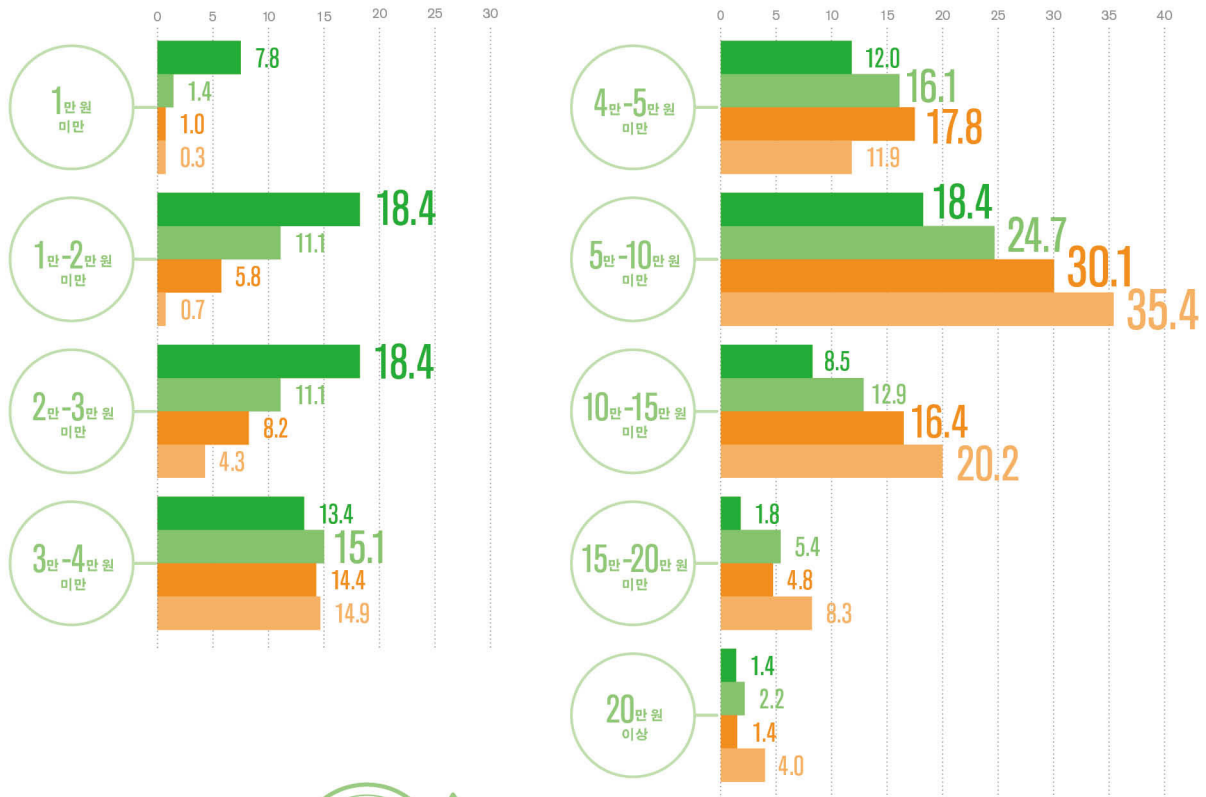
난방비 급등으로 기존 10만 원 이하로 난방비를 지출하던 가구수가 줄어들고, 15만 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. 즉 난방비 상승에 따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가구가 난방비 지출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. 특히 3분위 이하 임차가구는 여전히 5만 원 이하의 적은 난방비로 생활하고 있는 비중이 높으나, 5만 원 이하 지출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* 해당 3분위는 기준 중위소득(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) 대비 70% 이내에 속하는 가구. 2023년 기준, 가구원수에 따라 월소득 1인(1,454,524원), 2인(2,419,308원), 3인(3,104,371원), 4인(3,780,675원), 5인(4,431,482원), 6인(5,059,587원), 7인(5,675,261원)으로 산정

Q 여름철 냉방비 사용 양상은?

(단위: %)

■ 3분위 이하 임차(283명) ■ 일반가구 임차(292명)
■ 3분위 이하 자가(279명) ■ 일반가구 자가(302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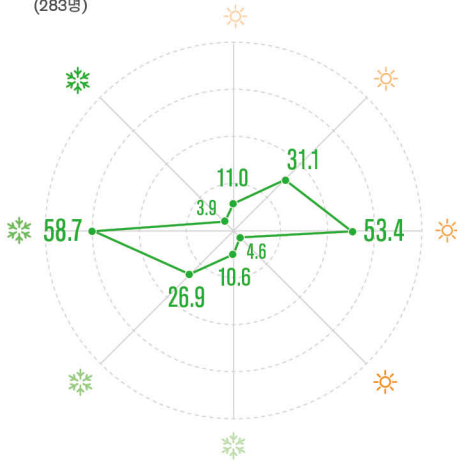
A 냉방비 지출액이 가장 적은 유형은 3분위 이하 임차가구이며, 소득이 높을수록 냉방비 지출이 증가

가장 낮은 구간인 '1만 원 미만', '1만~2만 원', '2만~3만 원'을 지출하는 가구는 3분위 이하 임차가구에 집중되어 있다. 이후 냉방비 지출액이 높아질수록 3분위 이하 자가가구, 일반가구 임차가구, 일반가구 자가가구 순으로 비중이 높아졌다. 임대·자가에 따른 차이가 냉방비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이 더 필요하나 소득이 높을수록 냉방비 지출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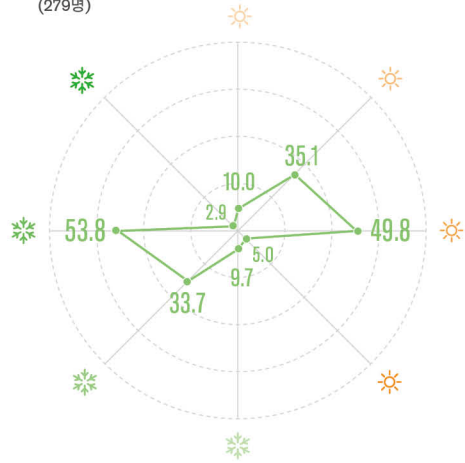
Q 시민들의 냉난방 사용 수준은?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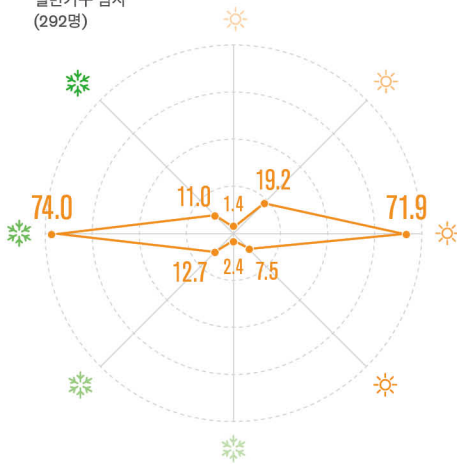
3분위 이하 입차
(283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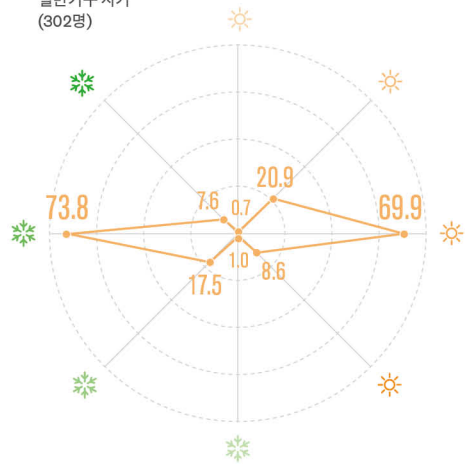
3분위 이하 자가
(279명)



일반가구 입차
(292명)



일반가구 자가
(302명)



여름철 냉방 수준



냉방 거의 하지 않음 최소한의 냉방 덥지 않을 정도로 냉방 매우 시원하게 냉방

겨울철 난방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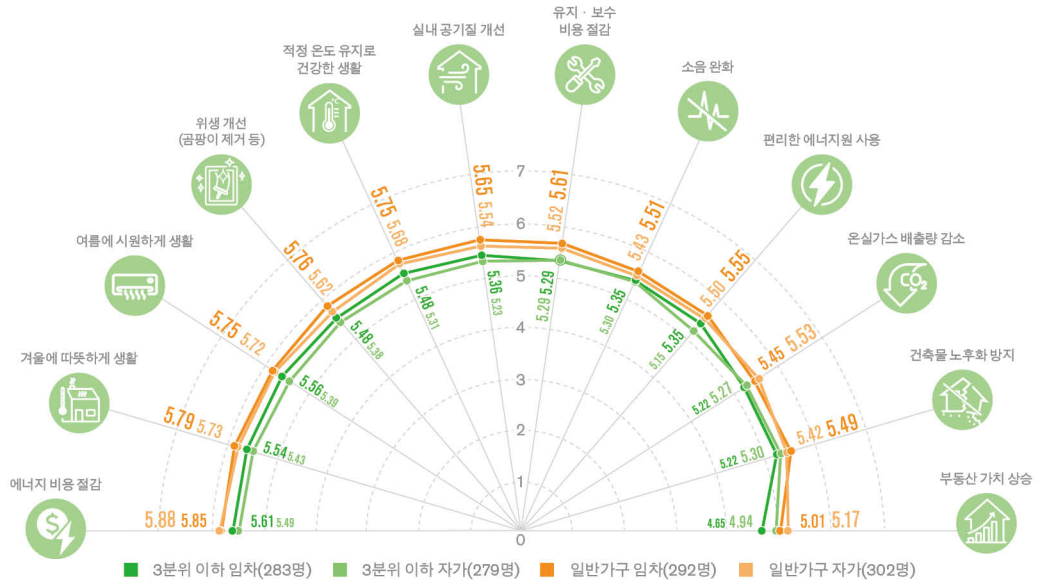
난방 거의 하지 않음 최소한의 난방 춥지 않을 정도로 난방 매우 따뜻하게 난방

A 냉난방을 거의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냉난방만 하는 가구는 3분위 이하 입차·자가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

'난방을 거의 하지 않는다'고 응답한 가구가 가장 많은 유형은 3분위 이하 입차가구(11%)와 3분위 이하 자가 가구(10%)였다. '최소한의 난방'만 한다고 응답한 가구도 3분위 이하 입차가구(31.1%)와 3분위 이하 자가가구(35.1%)에서 높게 나타났다. '냉방을 거의 하지 않는다'고 응답한 가구 또한 3분위 이하 입차가구(10.6%)와 3분위 이하 자가 가구(9.7%)로 나타났으며, '최소한의 냉방'을 한다고 응답한 가구도 3분위 이하 입차가구(26.9%)와 3분위 이하 자가 가구(33.7%)가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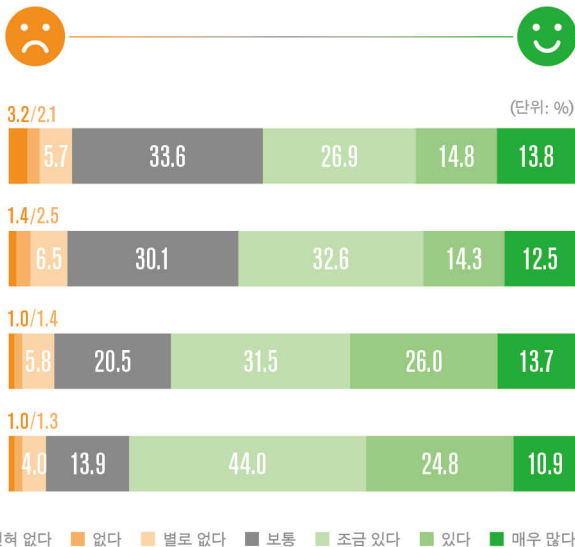
Q 그린리모델링 혜택별 호감도는?

(단위: 점, 7점 평균)



A 전 가구 유형에서 '에너지 비용 절감'에 큰 호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, '부동산 가치 상승'에 대해서는 낮은 호감을 보임

그린리모델링 혜택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일반가구에서 3분위 이하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. 항목별로 보면 전 가구 유형에서 '에너지 비용 절감'에 상대적으로 큰 호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, '부동산 가치 상승'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.



Q 그린리모델링 참여 의향은?

A 그린리모델링 참여 의향이 가장 높은 유형은 일반 가구 자가가구였으며,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

그린리모델링 정책 시행 시 참여 의향이 '있다'는 응답은 일반가구 자가가구에서 79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일반가구 임차가구에서 71.2%를 보였다. 반면 3분위 이하 자가가구는 59.5%, 3분위 이하 임차가구는 55.5%로 낮은 의향을 나타냈다. 한편 임차를 함에 따라 공사에 제약이 있는 일반가구 임차가구가 3분위 이하 자가가구보다 참여 의향이 높았다. 즉, 소득이 높을수록 그린리모델링 정책에 참여할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.